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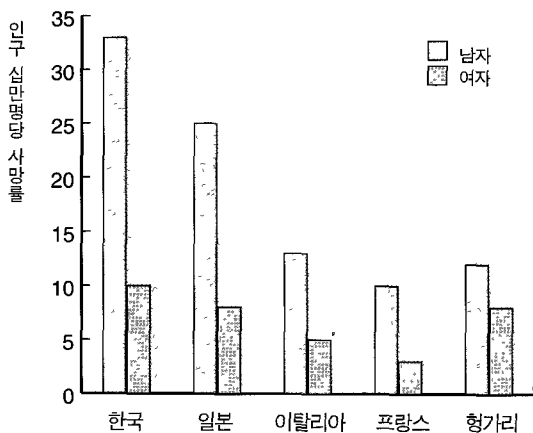
# 한국인 간 질환의 역학조사

한국인에게 있어 간질환은 단일 장기에 의한 사망에 있어 1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질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HBsAg 양성률이 7~10퍼센트로 남자 인구 10만 명당 B형 간염 발생률이 16명으로 B형 바이러스 간염의 만연 지역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급성 간염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이다. 성인에게 발생한 급성 바이러스 간염 중 B형이 60~63퍼센트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 되었으며, 만성 활동성 간염과 간경변증의 약 73퍼센트, 원발성 간암의 약 77퍼센트에서 HBV의 지속성 감염이 증명됨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B형 백신 프로그램 도입 후 HBsAg 양성률은 1988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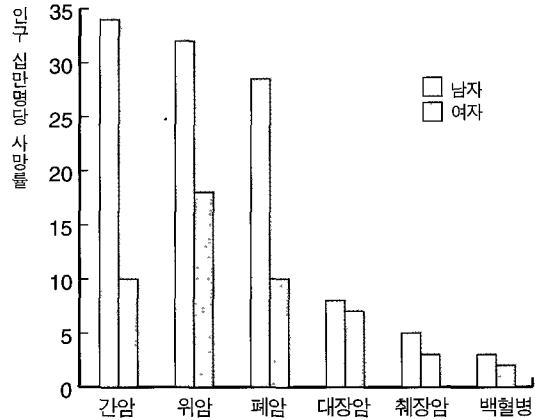
HCV관련 간질환은 50대부터 상대적 빈도가 높아지기

## 간암 사망률의 국제 비교



• 자료 WHO, 1995, 세계 보건 통계연감 1996

## 한국인 남녀의 암 사망률 / 1996



• 자료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연보 1996

시작하여, 60년대부터는 B형 간질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B형 간염이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HCV에 의한 간경변증 및 간암 환자들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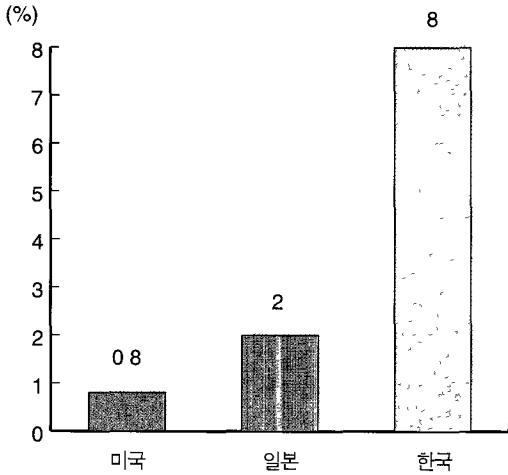
한국인에 있어 anti-HCV 양성률은 공혈자에서는 0.42퍼센트, 건강 성인에서는 1.43퍼센트 정도이다 그러나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에서 anti-HCV의 빈도는 27퍼센트, 20퍼센트, 17퍼센트에 이르러 HCV가 만성 간질환의 원인으로 HBV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혈 후 간염 환자의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66~92퍼센트로 높으며, 수혈 경험은 C형 간염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HCV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수혈 이외에 수술, 침, 문신용 바늘 등의 경구적 경로가 중요하다. B형 간염과는 달리 성적 접촉이나 수직 감염은 그 중요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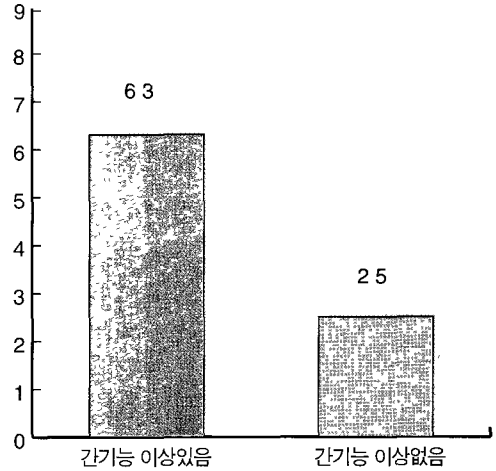
간염 환자의 8퍼센트, 간경변 환자의 6퍼센트가 알코올성 간질환을 나타내는 서양에 비해 중요도가 적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술 소비량은 순수 알코

간경변의 HBsAg 양성률



간기능 이상 유무에 따른 HBsAg의 양전율



올로 1960년엔 1.0%, 1980년엔 7.0% 임에 비해 1988년엔 9.1%, 남성 인구에서는 18.4%로 증가하고 있어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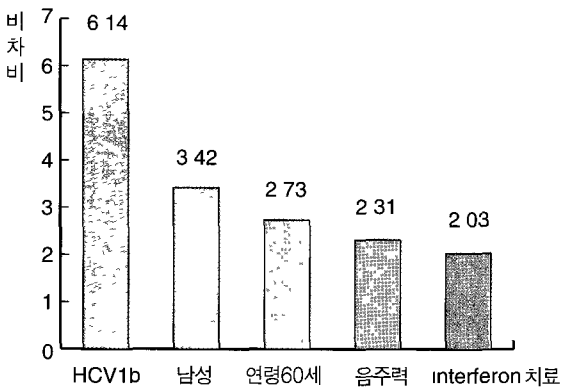
간암 환자의 60~90퍼센트에서는 간경변증이 관찰되며, 간경변증 환자의 5~20퍼센트에서는 간암이 발생한다. 간경변증의 사인으로는 간부전증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부위장관 출혈, 원발성 간암 등이 주요한 원인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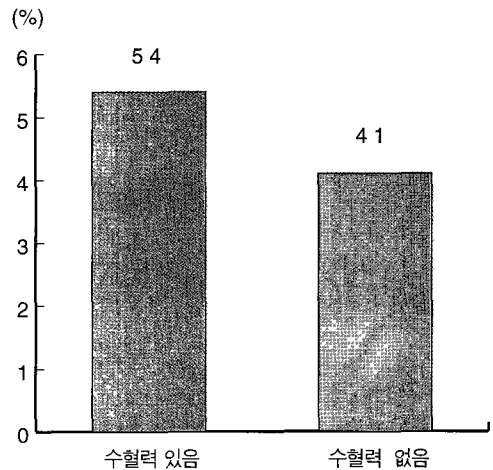
50세 이상 HBsAg 양성인 간경변증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9.9퍼센트로 매우 높다. 간세포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추적 조사 중에 관찰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는 남자, Child-Pugh A, HBsAg, anti-HCV, 복수 유무, AFP, ICGR(15), 혈소판 수 등이 있다.

1970년 이후 우리 나라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비감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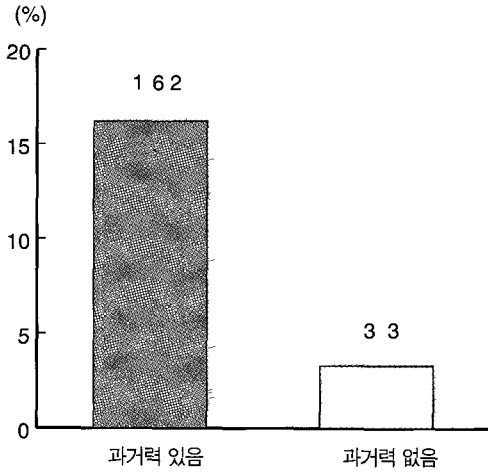
C형 바이러스성 간경변에서 간세포 암의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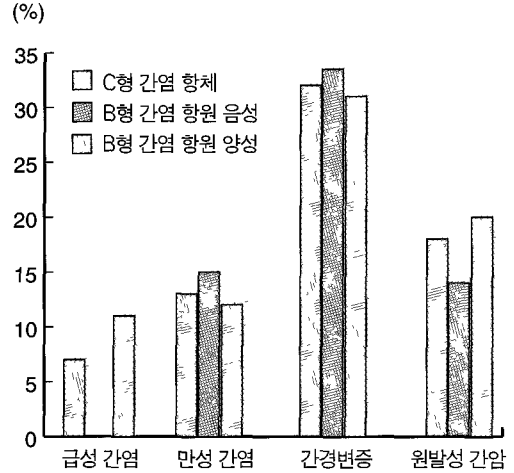
수혈력 유무에 따른 HBsAg 양성률



간염 과거력 유무에 따른 HBsAg 양전율



각종 간 질환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율



질환으로 바뀌었다. 199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사망자의 21.3퍼센트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위암 다음으로 많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 나라 간암의 평균 발생 연령은 48.9세이고, 40~49세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간암 환자의 36.8~39퍼센트가 40대에 발생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5.3~7.2배 높은 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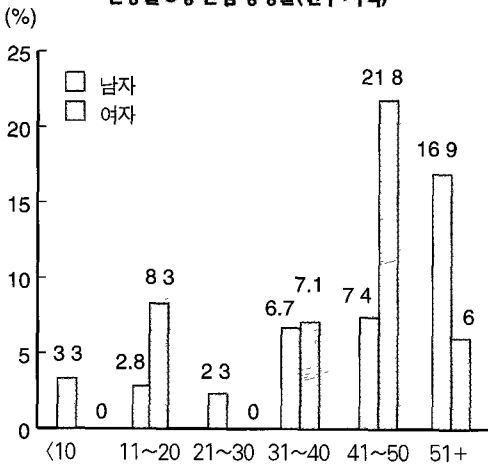
89년을 기준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의 빈도가 감소하며 이는 점차 더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

HCV양성 간경변은 50대에 호발하며, HBV양성 간경변은 40대에 호발한다 HCV양성 간경변은 5년 내지 6년 만에 절반 이상에서 간암을 초래한다 HBV와 HCV의 중복 감염은 HCV자체가 HBV의 간 손상을 지속시켜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하므로 중요하다

한국인에서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간염 바이러스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1년 우리 나라 인구 10만 명당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3.7, 만성 간질환 및 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28.8로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C형 간염 양성율(원주지역)



HBs 및 HBc항원 항체별 간질환 발생률

